

‘갤럭시북3 울트라’ 출격 대기... 프리미엄 랩톱시장 정조준

갤럭시 언팩 D-6

역대급 성능으로 프리미엄 전략 강화
인텔 13세대 i9 프로세서 탑재 전망
전용 GPU, 고용량 배터리 등 장착

삼성전자가 노트북 시장에서도 프리미엄 전략을 보다 강력하게 구사하며 점유율 확장에 열을 올릴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이미 ‘갤럭시북’ 시리즈로 29년 연속 국내 노트북 시장 1위를 지키는 가운데 새해 언팩 행사를 통해 최고급 사양인 ‘갤럭시북3’ 공개를 앞두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다음 달 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갤럭시북3 ▲갤럭시북360 ▲갤럭시북3프로 ▲갤럭시북3프로360 ▲갤럭시북3울트라를 발표할 것으로 추정된다.

노트북 부분에서 눈길을 끄는 소식은 ‘울트라’ 라인 추가다. 갤럭시 스마트폰 시리즈에서 최고급 사양을 지칭하는 단어인 ‘울트라’가 노트북에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전력을 다하고 있는 폼팩터인 ‘갤



지난 23일 부산의 한 삼성프리미엄스토어에서 고객들이 노트북을 체험하고 있는 모습

/허정윤 기자

럭시 S 시리즈’와 통일감을 추구하며 노트북 시장에서도 프리미엄을 지향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IT 전문매체 샘모바일도 갤럭시 북3 시리즈에 대해 “갤럭시북3 울트라는 애플의 맥북 프로와 맞설 수 있는 최고급 노트북”이라며 “갤럭시북3 울트라는 델 XPS 15와 맥북 프로보다 가벼울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으며 기대감을 내비친 바 있다.

노트북 신제품에는 인텔의 13세대 코어 프로세서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된다. 13세대 인텔 코어 i9중 최상위 버전

인 인텔 코어 i9-13900K는 최대 24코어(P코어 8개, E코어 16개)로 32개 작업(스레드)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여기에 15.6~16형 슈퍼레드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디스플레이를 장착하고, 파일 공유 기능 삼성 퀵쉐어(Quick Share)도 탑재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윈도 헬로 인증 시스템’ 사용이 가능한 웹캠과 전용 그래픽처리장치(GPU), 고용량 배터리 등이 장착될 것이라고 알려졌다.

전자업계는 스마트폰 시장은 물론, 노트북 시장에서도 애플과 삼성전자가

프리미엄 시장을 두고 호각을 겨루는 구도가 생성됐다고 보고 있다.

애플도 신형 노트북인 14·16인치 ‘맥북 프로’ 신제품으로 국내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애플이 직접 개발한 신형 칩셋 ‘M2 프로·맥스’를 맥북에 적용해 전작 대비 CPU 속도가 20% 빠르게 만들고, GPU 성능은 30% 개선하는데 성공했다. 애플은 이번에 적용한 칩셋은 노트북 전력 효율 성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시스템온칩(SoC)이라고 밝혔다.

배터리 수명도 14인치 경우 기존 17

시간에서 최대 18시간으로, 16인치는 21시간에서 최대 22시간으로 늘어났다.

랩톱 제작업체들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고물가 상황에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됐지만, 프리미엄 전략과 모델 다양화를 통해 다양한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며 시장 점유율 사수에 나서는 모습이다.

실제로 시장조사업체 카날리시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PC(랩톱+데스크톱) 출하량은 전년 대비 약 16% 줄어든 2억8510만 대로 지난해 연속 감소했고, 랩톱은 전년 대비 19% 감소한 총 2억 2380만 대 출하하는 데 그쳤다.

전자 업계 관계자는 “랩톱 시장도 지금의 경기침체를 피할 수 없었지만, 삼성전자가 ‘고성능 노트북’을 브랜드 이미지로 인정받아 소비자를 만족하게 한다면 ‘프리미엄 랩톱 시장’에서 더 높은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포스코케미칼, 양극재 핵심기술 수출길 열려

산자부 설계·제조기술 해외수출 승인
북미 등 해외 생산기지 활용 가능해져

포스코케미칼이 양극재 국가핵심기술을 해외 생산기지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해외 시장 공략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6일 포스코케미칼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포스코케미칼이 보유한 국가핵심기술인 ‘니켈 함량을 80% 초과하는 양극소재 설계, 제조 및 공정기술’의 해외수출을 승인했다.

국가핵심기술은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크고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수출 시 정부가 엄격한 보안

요건을 요구하는 기술을 뜻한다. 해외 공장에서 활용하려면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반도체·전기전자·철강 등 13개 분야 75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고시하고 있다.

니켈 비중을 높인 양극재 제조 기술은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는 핵심기술로,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포스코케미칼의 기술 보호 수준, 배터리 산업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인 여부를 결정했다.

포스코케미칼은 급성장하는 전기차 시장과 국가별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자동차사 및 원료사와 합작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북미, 유럽, 중국 등에 거점별 양산능력 확대를 적극 추진 중이다.

이번 승인으로 포스코케미칼은 해외 양극재 생산법인인 캐나다 얼티엄캠과 중국 절강포화에서 고성능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소재인 하이니켈 양극재를 양산하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또 이번 승인을 통해 축적된 경험이 향후 북미와 중국 외 다른 해외지역 사업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SKT-두산로보틱스 무인 커피로봇 서비스 선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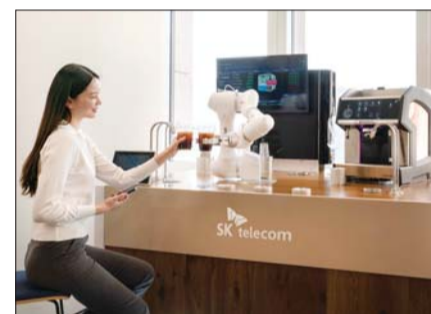
‘AI 바리스타로봇’ 출시

SK텔레콤은 국내 로봇제조 선두업체인 두산로보틱스와 함께 무인 커피로봇 서비스인 ‘AI(인공지능) 바리스타로봇’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AI 바리스타로봇은 두산로보틱스의 앞선 로봇 제조 및 서비스 역량에 SKT의 AI, 빅데이터, 보안 등 다양한 빅테크 기술을 결합한 무인 커피로봇 서비스로, 커피, 에이드 등 20여종의 다양한 음료를 제조할 수 있다.

SKT의 AI 바리스타로봇은 SKT의 AI, 빅데이터 솔루션 및 보안 기술을 적용한 차별화된 운영 시스템을 통해 점주의 관리 부담을 크게 줄인 것이 특징이다.

SKT의 데이터 분석 플랫폼(설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메뉴별/지점별 매출현황, 원재료 소모, 기기상태 등을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해 알람으로 알



SK텔레콤은 국내 로봇제조 전문기업인 두산로보틱스와 함께 무인 커피로봇 서비스인 ‘AI 바리스타로봇’을 출시했다.

/SKT

려주고, 커피류, 에이드류, 우유류 등 고객이 원하는 항목별 제조현황 분석 자료도 제공한다. 또 2월 중 앱 버전도 오픈할 예정이다.

점주는 무인 운영에 따른 불편함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매장 관리 부담없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등 운영 효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채윤정 기자

클라우드·물류사업 고속 성장... 매출 17.2조 ‘사상 최대’

삼성SDS 2022년 잠정실적 공시

영업익 9161억... 배당안 33% ↑

삼성SDS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26% 성장하며 연간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삼성SDS는 2022년 매출액 17조 2347억 원, 영업이익 9161억 원의 잠정실적을 26일 공시했다.

2022년 4분기 실적은 매출액 4조 2500억 원, 영업이익 1875억 원으로 집계됐다.

사업 분야별로 보면 IT 서비스 사업 연간 매출액은 제조·금융·공공 분야 클라우드 사업 확대와 차세대 ERP 전환 컨설팅 수행 등으로 5조 9682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5.9% 성장했다.



삼성SDS 사옥. /삼성SDS

특히, 클라우드 사업에서는 삼성클라우드서비스(SCP) 기반의 CSP 사업과 엮 현대화를 중심으로 한 MSP 사업이 고르게 성장하며 연간 매출 1조 1627억 원을 달성했다.

물류 사업 매출은 항공 물동량 증가와 미주·유럽 물류 서비스 확대 등으로 11조 2666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41% 증가했다.

삼성SDS는 또 올해 지속되는 전세계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클라우드’와 ‘디지털 물류’에 방점을 두고 글로벌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IT 서비스 사업에서는 삼성클라우드 서비스(SCP)의 다양한 상품을 추가하고 글로벌 리전을 확대하는 등 클라우드 사업을 강화한다.

또한, 물류 사업에서는 헬로스퀘어를 중심으로 미국, 유럽 등으로 서비스 권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삼성SDS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배당안을 지난해 주당 2400원에서 33% 증가한 3200원으로 결정했다. 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개년 배당성향을 30% 수준으로 한다는 배당정책을 공시했다.

/채윤정 기자 echo@

네이버, 성과급 대폭 삭감... 직원불만 급증

전년 대비 20~40% 이상 축소 분석

네이버가 성과급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삭감하면서 직원들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장 익명 앱 블라인드 앱에는 “이직을 해야 하나”, “성과급이 절반 이상 줄었는데 더이상 팀에서 필요없다는 얘기가” 등 직원들이 불만을 표출하는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네이버는 이와 관련해 2월 3일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온라인 사내 간담회인 ‘컴퍼니 데이’를 개최할 계획인데, 이때 성과급 규모와 재원에 대해서

직접 설명할 계획이다.

네이버 관계자들에 따르면 직원들의 성과급은 전년과 비교해 20~4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또 지난해 중간 고과자가 연봉의 20%를 인센티브로 지급받았지만 올해 8~11% 수준을 받아 성과급은 거의 반토막이 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 관계자는 “직원들의 성과급 지급이 줄어든 것은 맞다”며 “비율은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정적인 비율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채윤정 기자